

전기차 정비 '달인'·상담 로봇 '달이'...車업계 변화 속도낸다

기아, 국내 첫 전기차정비기술인증제 'KEVT' 도입...서비스 질 향상 현대차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DAL-e'...자연어 대화·자율이동 탑재

국내 자동차업계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언택트 시대와 전기차 경쟁 등 변화하는 자동차 시장 흐름에 따라 경쟁력 갖추기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인 전기차 사업체제로 전환을 앞두고 전기차 정비 기술 인증제도를 도입, 비대면 시대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까지 선보이고 있다.

◇국내 최초 전기차 정비기술인증제도= 기아는 전기차 사업체제로 전환 계획에 따라 국내 최초 전기차 정비기술인증제도인 'KEVT' (Kia Electric Vehicle Technician level up program)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KEVT는 기아의 정비 협력사 오토큐와 소속 정비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전기차 정비 기술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전기차 정비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고객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최고 수준의 전기차 기업으로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게 기아의 계획이다.

기아는 KEVT를 기술 역량 수준에 따라 베이직(Basic)과 프로(Pro) 총 2개 등급으로 분류해서 운영한다.

오토큐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 정비 기술 인증에서 베이직 등급을 취득하려면 2개의 교육 과정인 'EV 에센셜'과 'EV 진단 I'을 수료한 후 필기 평가를, 프로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베이직 등급 취득 후 'EV 진단 II'에 대한 교육 수료 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오토큐 협력사의 경우 전기차 정비 인프라 보유

여부에 따라 인증을 부여하는데, 베이직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를 정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장비와 KEVT 베이직 등급을 취득한 엔지니어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프로 등급을 획득하려면 전용 작업 공간인 전기차 워크베이를 포함해 프로 등급 엔지니어 1명, 베이직 등급 엔지니어 1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베이직과 프로 등급 자격을 취득한 오토큐 협력사에는 자격 인증 현판이 주어진다.

개인 정비 기술 및 오토큐 협력사 인증 평가 중 베이직은 이번 2월부터 이뤄지며, 프로는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기아는 올 상반기까지 전국 오토큐의 50% 이상이 KEVT 베이직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언택트 시대...인공지능 서비스 로봇 도입=현대차그룹은 이날 서비스 로봇 'DAL-e(달이)'를 최초로 공개하고 현대차 송파대리점에서 한 달간 고객 응대 시범서비스에 나섰다.

이번에 선보인 'DAL-e'는 기존 국내에 출시된 안내 로봇들과 비교해 절반 정도의 중량에 근접하고 따뜻한 감성 디자인의 아담한 외모가 특징이다. 얼굴 인식, 자연어 대화 기술, 자율이동 기술을 탑재해 현대차·기아 영업지점 등 고객 응대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DAL-e'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고객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인식기능까지 탑재하고 있으며, 유연한 자연어 대화 시스템과 로봇

팔 구동을 바탕으로 고객의 행동에 반응하고 교감 가능하다.

주변의 장애물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회피하는 자율 이동기술과 전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4개 휠을 활용해 고객을 직접 안내할 수 있고, 차량 전시장의 대형 스크린과 연계한 제품 상세 설명뿐 아니라 사진 촬영 등 엔터테인먼트 기능까지 탑재했다.

현대차그룹은 'DAL-e'를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은 물론 주말 등 영업점 방문이 활발한 시간대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듣기 원하는 고객에게도 카마스터의 역할을 분담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영업 현장에서의 고객 요구 사항을 기반으로 'DAL-e'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고객 응대에 특화된 로봇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기아 오토큐 정비 엔지니어가 'KEVT 베이직' 인증 현판을 선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현대차자동차그룹의 비대면 고객 응대 서비스 로봇 'DAL-e'.



올 전기차 보조금 800만원...6000만원 미만 전액 지급

올해부터 9000만원 이상의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 치열해질 전기차 경쟁에서 국내 자동차업계가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최근 정부가 내놓은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보면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해 연비보조금과 주행거리 보조금이 각 400만원으로 동일했으나, 2021년에는 연비 보조금이 60%(420만원)로 증가하는 대신 주행거리 보조금(280만원)이 40%로 감소했다.

연비·주행거리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줄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이형보조금은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에너지효율보조금 또한 상온 대비 저온 충전 주행거리 비율을 기준으로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최대 82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보조금은 자동차 차량 가격별로도 차등 된다. 6000만원 미만은 전액 지급하고, 6000~9000만원 미만은 절반, 9000만원 이상은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 최대 820만원이던 전기 택시 지원금 상한액도 1000만원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까지는 지자체 보조금을 차등 없이 지원했으나, 올해는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 보조금에 비례해 지방비 보조금도 차등 지원한다.

전기버스의 경우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1억원)이 설정됐다. 보조금은 대형 1억원에서 8000만원으로 줄었고, 중형은 8000만원으로 동일하다.

전기 화물차는 경형은 11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고, 초소형은 512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소형은 1800만원으로 통일됐으나, 올해 일반은 1600만원, 특수는 2100만원으로 차등 된다.

보조금 개편에 따라 승용차의 경우 현대 코나 기본(PTC·HP)과 기아 니로(HP) 등이 국고보조금 800만원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테슬라의 모델3은 스탠다드는 684만원, 퍼포먼스는 329만원을 국고에서 지원받게 된다. 테슬라 모델S 등 9000만원 이상 자동차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수소자동차 중에서는 현대의 넥쏘가 국고에서 2250만원을 보조받는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벤츠 콤팩트 순수전기차 '더 뉴 EQA' 공개

1회 완충 426km 주행

메르세데스-벤츠는 최근 콤팩트 순수전기차 '더 뉴 EQA'를 공개했다.

더 뉴 EQA는 콤팩트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벤츠 GLA 모델을 기반으로 전기 파워트레인을 적용했다. '진보적인 럭셔리'라는 브랜드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순수전기차의 특성을 보여주는 인터리어를 적용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EQA는 GLA 모델의 디자인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고, 전면부의 검정색 라디에이터 그릴에는 브랜드를 상징하는 삼각별이 중앙에 위치해 있다.

실내에는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돼 디스플레이의 메르세데스-EQ 항목을 선택하면 충전 옵션과 전력 소비, 에너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계기판의 오른쪽 디스플레이에는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전력계가 있고, 좌측 계기판에



는 배터리 잔량과 주행 가능 거리가 표시된다.

더 뉴 EQA의 1회 완충시 주행 거리는 426km이며 최고 출력은 140kW다.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시간은 약 30분이다. 최고 속도는 시속 160km,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8.9초다.

'더 뉴 EQA 250' 모델로 우선 출시되며 전기 파워트레인을 추가로 장착한 사륜 구동 모델과 500km 이상의 주행 거리를 제공하는 모델 등 추가적인 라인업이 나올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벤츠 고객 설맞이 서비스

더클래스 효성 내달 20일까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 더클래스 효성은 '2021 설맞이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더클래스 효성이 운영하는 전국 11개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내달 20일까지 진행된다.

더클래스 효성은 장거리 이동에 대비해 12가지 주요 항목에 대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며,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부품(공임제외)을 15% 할인해 판매한다.

또 블루투스 연결 장치와 스마트폰 연동을 통해 차량 관리 커넥티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메르세데스 미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장착 가능한 차종에 대해 무상 장착 혜택도 제공한다.

여기에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 기존 통합 서비스 패키지 기간(ISP) 내 정기점검을 위해 차량을 입고한 고객에게만 제공했던 '픽업&딜리버리 서비스'를 서비스센터가 위치한 시대에 한해 대상 고객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이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엔 그가 너무 크다."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저자 이진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꿈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